

독일 국민방문 – 연방하원 인사와의 만찬

- 인사말 -

독일은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할 줄 아는 양심과 용기,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했다.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할 우리로서는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이)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또한 이웃나라들과의 협의를 거쳐 편찬하고 있다.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브란덴부르크문을 보면서 역사의 진보에 대한 확신과 함께 대결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그곳을 자유와 평화의 광장으로 바꿔놓은 독일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독일 통일에서 교훈과 희망을 얻게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으나 서두르지도 좌절하지도 않겠다.

독일이 EU 확대와 헌법조약의 타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세계 역사에 남을 EU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뤄냈다. 유럽은 이제 전쟁과 대결의 역사를 마감하고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도 화해와 통합의 질서가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앞서 노력할 것이다.